

16/05/15(주) 주일예배 / 제목 : 스승의 주일에 생각할 것들(갈6:6) p.309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스승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오늘은 스승의 날이면서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어린이 주일과 아버지 주일은 가정의 달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 실감도 나고 약간은 피부에 와 닿는데 스승의 주일은 별로 느낌이 없으시지는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 가정의 달에 스승의 주일을 구태여 지킬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이 영적 질서를 세우고 또 행복해 지려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려면 스승을 통해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먼저, 스승의 날 유래와 변천에 대해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58년 5월 8일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적십자의 날을 맞아 병중에 있거나 퇴직한 교사들을 위문하기 시작하면서 스승의 날을 제정하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 1963년 10월 서울과, 1964년 4월 전주에서 청소년적십자단의 각도 대표가 모여 회의를 열고, 불우한 퇴직교사 또는 질병에 걸린 교사를 위로하자는 차원에서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전국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다가 몇 차례의 우여곡절을 겪은 뒤 1973년, 국민교육헌장 선포일인 12월 5일에 통합 폐지되었고, 1982년부터 다시 채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날은 스승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여러 가지 행사를 각급 기관 및 단체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유공자 포상과 음악회, 체육대회 등이 열립니다. 정부에서는 스승 찾아뵙기, 안부편지 보내기, 모교 및 자녀학교 방문하기 등의 운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교원들에게 훈장, 포장 및 대통령, 교육부장관 표창 등을 수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승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경건한 뜻을 표하며, 불우한 퇴직 은사나 외병 중인 교사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스승의 날에 대한 유래에 비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도 별로인 것 같고 이 날에 대한 취지와 이미지도 많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우리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과 스승의 은혜는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의 장래는 너무나 어두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결코 올바르게 키울 수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정말 그리운 선생님 즉 존경받을 만한 스승이 그리워지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영혼의 스승, 진정한 스승이 그리운 시절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스승의 날'이라는 노래 가사를 아시나요? 1절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스승은 마음의 아버지시다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옛날에는 학교 교육이 지식교육만이 아니라 인성 교육까지 대부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곧 학교 선생님들이셨습니다. 이유는 당시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학력이 낮았었고, 그래서 인성 교육을 가정에서 시킬 만한 부모님들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부모님은 낱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일을 담당하였고, 나머지는 학교 선생님들이 인간이 되도록 가르치시고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함께 이 인성 교육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고 사회도 매우 발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식당이나 여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연수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어른들이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내일을 위한 교육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도 아이들에게 있어서 삶의 수련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만남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일생이 결정된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부모와 자식이 되었던, 선생과 제자가 되었던, 친구와 주변의 동료가 되었던, 수직적이건 수평적이건, 가르침이 되었던, 나눔이 되었던, 모방이 되었던, 결국은 교육의 모습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의 형태 중에서도 비교적 가장 많은 것을,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에서 습득하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맞이한 스승의 주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생각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주일학교 교사를 비롯하여 구역장과 목회자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분들을 대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스승의 주일에 생각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론 / 스승의 주일에 생각할 것들은 무엇인가?**

**1. 스승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주체자는 선생님입니다. 왜 그러하나는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왕이 있었고 그 왕이 다스릴 때는 나라가 평안하고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4장을 보면 일곱 살의 천신만고 끝에 왕위에 오른 '호수'라는 왕이 나옵니다. 요아스는 안타깝게도 그가 갓난아이일 때에 그의 아버지가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할머니가 되는 아달랴가 손자들을 죄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말

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고모가 그 왕자를 몰래 숨김으로 말미암아 일곱 살까지 길렀고 일곱 살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하여서 요아스를 왕위에 추대하게 됩니다. 역대하 24:2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아스가 어린 왕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잘 가르치고 보필하고 그에게 지도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 요아스가 잘 성장하였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합당한 판단으로 그 나라를 치리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라고 24:15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이 다가옵니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살았는데, 여호야다가 나이 130세가 되어 늙어 죽게 되었을 때 이 요아스의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17절 이하를 보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왕이 판단력 없이 그 말을 그냥 믿게 됩니다.

그 결과 18절에 이르기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에게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를 세웠던 스승이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할 때, 그릇된 무리의 말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릇된 결정을 내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이런 기도제목을 부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 새로 입학했는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만나서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기도제목을 보노라면 ‘참 지혜로운 분들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교회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선생님과, 학교에서 그들의 삶의 지식을 지도하는 선생님께서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연결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듣는 자리에서 교회를 비난한다거나, 목사를 비난한다거나, 아니면 선생님들, 혹은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을 비난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훌륭한 어른들로 알았는데 그렇게 비난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녀들의 믿음이 바르게 자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교회의 목회자나 자기 자녀를 지도하시는 선생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만한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 가는 것이기에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나, 혹은 어떤 곳에 이사 가서서 내가 어떤 교회를 출석할 것인가를 정할 때, 어떤 기준에서 교회를 정하셨습니까?

교회 건물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 그 교회에 다녀서입니까? 물론 그런 이유로 교회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설교가 나에게 유익과 기쁨과 소망을 주는지 여부를 보고서 교회를 정하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자체가 이런 경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정하는 기준 중의 하나는 그 교회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가졌을까?, 내 자녀를 잘 교육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택할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책에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설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나와 내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시킬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위하고 또 나를 위한다면, 나를 가르치는 목회자와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주일에 먼저 생각할 것은 스승의 중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했듯이 요아스 왕의 생애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스승의 주일에 생각할 것들 1. 스승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2.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좋은 것을 같이 한다는 것은 일체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있을 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일체감이 있어야 교육은 진실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육이란 일정한 것을 주고받는 거래행위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것은 인격의 공유를 통한 사랑의 합성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무엇이든 나누고 싶은 일체감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가르침은 배우는 사람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확신하고 배운 바대로 살겠다고 각오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기쁨이 있을 때, 가슴 설레는 감동과 감사가 있을 때 그것을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겸허히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나 교사들이 성도와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듯이 성도님들과 학생들도 목회자와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체감이요, 은혜요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좋은 것이 있을 때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생각하며 그 기쁨을 전해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 (고전4:1)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군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찌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목사나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섬기는 것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곧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19을 보시면 좋은 것 중에 가장 기쁜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엡6:19)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르치는 자가 복음의 비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면 좋은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자기나 자기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기쁘게 해 드려야 합니다. 젓소가 기분이 좋아야 젓이 잘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음악도 틀어주고 깨끗이 목욕도 시켜 주고 한다고 그래요. 말씀을 가르치는 분도 기분이 좋고 은혜롭고 마음이 기뻐야 좋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저는 늘 목사가 행복해야 그 성도들이 행복한 말씀을 듣고 행복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 왜 그래야 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히13:17)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警醒)하기를 자기가 회계할 자인 것처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늘 근심하면서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게 만들면 유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힘과 용기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무엇인가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잘 할 때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 못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할 때는 본인도 알아요. 그렇지만 잘못했을 때, 낙심할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설교죠. 설교가 어려운 것은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과연 그 전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에 대한 늘 자문이요 자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 말씀을 존중하며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목사님이나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줘야 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선생님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받는 자체가 선생님에게 소망과 용기와 꿈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 그 말씀을 받고, 이렇게 훌륭하게 사람이 바뀌고, 이렇게 훌륭하게 진보되고 이렇게 훌륭하게 역사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마음에는 큰 뿌듯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장성하고 훌륭한 믿음의 인격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 내가 잘 되는 것 뿐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큰 기쁨과 은혜와 역사가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아주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에게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회에서도 사람을 키우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교회 안은 세상과는 달리 영적인 권위와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모든 가르침의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과 존경 속에서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할 때에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는 자도 행복하고, 배우는 자도 행복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결론핵심 : 스승의 중요성과 좋은 것을 함께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서 보답하는 사람이 됩시다.

**요약정리** / 스승의 주일에 생각할 것들

1. 스승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2.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스승의 은혜 노래 가사

1.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 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아버지시다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2.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은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간들 언제인들 잊사오리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3.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갇을 길은 오직 하나 살아 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나라 위해 겨레 위해 일하오리다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